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통합적 종합과학

지리학과

Department of Geography



<http://geo.khu.ac.kr/>





공간적 형성과정의 융합적 분석과 지역에 대한 이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지리학과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개설한 학과입니다. 지리학과는 지표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자연·인문적 현상들의 분포 패턴과 이러한 현상들의 공간적 형성 과정에 대한 융합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도시문제와 지역 갈등, 사회 및 기술 불평등 등과 같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리학과는 인문사회적 안목과 자연과학 및 공학적 안목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공간적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실습과 경험을 통해 인류의 여러 문제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진출을 위한 전문트랙 및 핵심교과

지리학과는 학문적 전문성과 실제적 응용력을 고취시키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트랙 및 핵심교과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커리큘럼에서 학생들은 기후-환경 전문 트랙, 시공간 빅데이터 전문 트랙, 도시관리 전문 트랙을 택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 전문 트랙을 선택한 학생들은 자연지리학 및 기후학, 지형학, 생물지리학, 토양지리학, 육수학에 대한 지식을 쌓고, 야외실습 수업을 통해 현장에 대한 경험을 함양한 후,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자연재해, 지구촌의 환경지리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시공간 빅데이터 전문 트랙을 선택한 학생들은 시공간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서 시작하여, 지리정보학, 원격탐사, 오픈소스 지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지리정보기술의 적용 등의 수업을 통해 지리정보를 자유자재로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지리학 및 인접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는 교수진

이론 및 실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 전문 트랙을 선택한 학생들은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문화지리학, 여가관광지리학, 교통지리학, 모빌리티스 패러다임 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쌓은 후, 도시 및 지역을 둘러싼 개발, 도시환경, 인간의 삶, 갈등 및 지정학적 문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접해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지리학의 교수진은 독창적인 연구 영역을 개척하여 국내 지리학 및 인접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공우석 교수는 국내 생물지리학, 특히 식물지리학의 권위자로서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윤순옥 교수는 지형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 영역을 구축해 왔습니다. 황철수 교수는 공간빅데이터를 디지털 지도 및 지리정보학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주성재 교수는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EN)을 이끌어오고 있으며 동해표기의 국제적 확산, 비판지명학, 지속가능발전과 지역개발, 공간의 경제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나카 유키야 교수는 유라시아대륙의 환경 이슈를 '물'의 순환 메커니즘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고수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해 온 수문학자입니다. 최진무 교수는 오픈소스 빅데이터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시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 문제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은걸 교수는 기후 변화 모델링, 기후 통계 분석을 통해 기후 위기 해결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상현 교수는 공간을 점유하는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수립해 온 정치지리학자입니다. 홍성연 교수는 온톨로지GIS, 공간통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GIS 방법론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동시에 공간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서희 교수는 이주민, 여행자 등 다양한 이동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며, 그 결과 어떻게 지역에 긍정적, 혹은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는가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를 밝혀내 왔습니다.

과내 전공 학회 활동

학생들의 과내 전공 학회 활동을 장려하여 국내외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술제 및 답사, 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독립심화연구 등으로 커리큘럼을 통해 접한 지식을 실제로 응용하고 적용해나가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지식인의 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수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위한 보건의료지도를 제작하여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성과를 내는 등, 학생들은 국내외 학회 및 공모전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학과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교과과목 및 답사 수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 주거 불평등, 재난, 도시재생을 둘러싼 문제, 낙후지역 문제 등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는?

다수의 졸업생들이 자연환경, 도시 및 지역개발, 관광, GIS 관련 민간 및 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졸업생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국립생태원, 국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여러 대학 및 지자체 부설 연구기관 등 국공립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상회담' 출연으로 잘 알려진 제임스 후퍼가 대표적인 사례로, 본교 지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지구환경을 중심으로 연구와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직을 이수하여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 동문으로는 박영선(전 국회의원, 전 중소기업부 장관), 윤진숙(전 해양수산부 장관), 권준학(현 농업은행장), 김창주(신시내티 대학 지리학과 교수) 등이 있습니다.